

국가별 동향



미국

기록적인 닭고기 가격으로 소비자 압박, Tyson Foods에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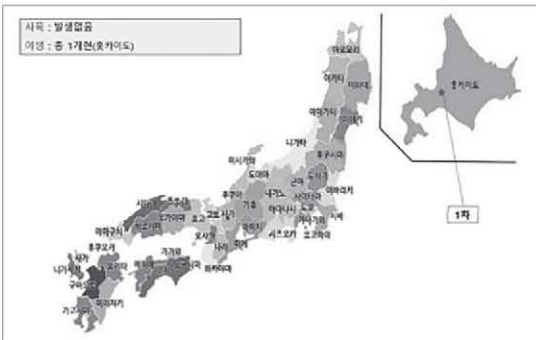
미국 세인트루이스카운티의 한 남성은 파파이스 레스토랑에서 \$150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데이먼 솔베리를 2급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감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자가 파파이스가 문을 닫은 이른 아침 시간에 내부로 들어가 냉동 닭고기 상자를 여러개 꺼냈다. 레스토랑 직원은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솔베리는 현재 \$75,000의 현금 전용

채권으로 투옥됐다. 사건 당시 그는 여러 건의 절도 사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있었다. [FOX 2 News]



일본

북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일본 환경청은 지난 10월 4일 북해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검사결과 고병원성 AI(H5형)가 검출되었다고 밝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북해도 비바이시에서 큰 부리까마귀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일본은 22년 9월 25일 가나가와현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바이

러스가 첫 발견된 이후 한달 후인 10월 28일 오키야마현 산란계에서 첫 발생, 총 84건(산란계 61건)이 발생(살처분 17,376천수)하면서 계란수급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계란 부족으로 일시적 구매 수량 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전국의 대규모 식료품 소매점에서는 쇼핑객이 구입할 수 있는 계란의 수를 제한했다. 더불어 생산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닭고기 부족까지 경고하고 있다. 소매업체인 Woolworths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부족으로 인해 Wollies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가능한 전란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6개의 방목 계란을 R29.99(US\$1.54)에 판매

하며, 임시 조치로 구매를 고객당 계란 6개들이 1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매업체인 Pick n Pay는 지역에 따라 고객당 계란 팩 1~2개로 구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고 Spar Group은 이웃 아프리카 남부 국가에서 계란을 수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ULTRY WORLD]



영국

세계 계란의 날



영국의 가금류 생산농가들은 10월 13일 금요일에 열리는 세계 계란의 날을 기념했다. 올해 주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계란’으로 계란이 갖고 있는 영양가 뿐 아니라 세계 건강과 농업에 미치는 이점에 대해 조명했다. 또한, 세계 계란의 날은 계란의 다양성과 계란을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작년에 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면서 농민과 대중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FU의 가금류위원회는 생산자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영국 가금류 생산을 선보이면서 이사회의 부의장인 Phill Crawley는

“영국 가금류 고기와 계란은 영양가 있고 다양하며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며 “영국의 가금류 농가들은 최고 수준으로 생산된 다양한 가금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도전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다시 한번 NFU는 올해 10월 13일 세계 계란의 날을 지원할 예정이다. NFU 회원들에게 고품질 영국 계란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요청할 것이다”고 전했다. 1996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금요일을 세계 계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Farminguk] **양계**